

만남

2016 8월
통권 139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2016 청년 MT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_____	3
신부님 칼럼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_____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무도한 자의 어리석음(시편 14,1-7) _____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44~146 -----	8
기도 소개	배우는 자세의 기도 _____	13
찬 양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_____	15
공동체 소식	_____	17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23
미사안내	_____	24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스포츠

스포츠를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만나 우의를 다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기도합시다.

❖ 선교 지향 - 복음 실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따라 살며 신앙과 진실과 이웃 사랑을 증언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성년 표어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져라'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2015.12.8-2016.11.20)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임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쁨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고개를 숙이며)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악마들도 여러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8월 달입니다. 차가운 날씨가 늘 서려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스한 햇살이 넘치는 달입니다.

따스한 햇살아래 과실은 달고 향기롭게 익고, 알곡은 여물게 됩니다.

이 햇살이 당신에게도 알찬 결실과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양은 ‘나는 태양이다!’ 하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지(大地) 위에 묵묵히 밝고 따스한 햇볕을 비추어주기만 합니다.

동녘에 태양이 솟아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의 여명(黎明)이 찾아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건강한 것과 병든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솟아오르고 어둠이 물러가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때 묻고 더러운 것, 병들고 상처 난 것,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있는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고, 가야 할 길도 보입니다.

태양의 밝음과 따스함으로 만물은 생명을 누리고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서는 태양입니다.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뇌에 쌓인 중생(衆生)들은 예수를 만나서 새 삶을 얻습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의 발길이 닿는 곳에 어둠의 세력인 악마도 물러갑니다.

만물이 따가운 햇살을 즐기듯,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한 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무도한 자의 어리석음(시편 14,1-7)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장 “용기장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 사랑이 넘치는 당신께서는 참된 저희 하느님, 저희의 주님이시나이다.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4. 1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 2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 3 모두 빗나가 온통 썩어 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 4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모든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저들. 주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 5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니
하느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 6 가련한 이의 뜻을 너희가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그의 피신처이시다.

7 아,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베풀어졌으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응답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마음 아파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모든 일을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난한 이들을 예수님처럼 섬겼던 우리 시대의 성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처럼 투철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분의 내적 일기에도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이 어둠은 너무나 깊고 저는 혼자입니다. 하느님은 저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버렸습니다. 제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깊은 바닥에도 내면엔 공허와 어둠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오면서, 구더기 들끓는 상처를 닦아내면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의심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심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다시 묻게 되고, 그 물음을 통해 진짜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이며, 하느님께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홍경완 신부님-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장 “용기장이”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준주성법 제 1 권

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

교리144

제16장 남의 과실을 참음

1 자기에게 또는 남에게 고치지 못할 과실이 있다면 그는 하느님께서 달리 마련하실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너를 단련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데 더 나은 줄로 생각하여라. 시련도 없고 인내도 없다면 너의 공로는 그리 크게 헤아릴 바가 못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같은 어려움에서도 충심으로 잘 참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2 누가 만일 네게 한두 번 훈계를 듣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와 다투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그 사정을 다 맡겨 하느님의 뜻과 영광이 하느님의 모든 종들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악을 선으로 바꿀 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는 남의 과실과 연약함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끈기 있게 참는 법을 배워라. 너도 다른 사람이 견뎌야 할 많은 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너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여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네 뜻대로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남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은 고치지 않는다.

3 우리는 남을 엄히 꾸짖어 그의 과실을 고치기를 원하나, 우리 자신을 꾸짖어 우리의 과실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 제님께 요구하여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청하려는 것을 거절당하면 불쾌히 여긴다. 다른 사람은 규칙으로써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구속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헤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다면 하느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일이 어디 있겠는가.

4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적절하게 조치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남의 짐을 져 줄’ (갈라 6,2 참조) 것을 배우게 하셨는데, 이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참

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가르쳐 주고, 서로 훈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누가 얼마만한 덕행이 있는지는 역경을 당할 때에 잘 드러나며, 역경은 사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 줄 뿐이다.

교리145

제20장 고요함과 침묵을 사랑함

1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적당한 때를 찾아라. 그리고 자주 하느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호기심거리는 무엇이든 버려라. 취미거리보다는 마음을 감동하게 할 만한 것들을 읽어라. 무익한 담화를 하지 말고 필요 없는 왕래를 끊고 헛된 소문과 쓸데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묵상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피정을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택했다.

2 어떤 사람(세네카)이, “내가 사람들과 상종할 때마다 항상 전만 못하여 돌아왔노라.” 라고 했다. 우리도 오래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한다.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보다 쉽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밖에 있으면서 자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쉽다. 그러므로 내적 영성 생활에 뜻을 둔 사람은 많은 군중을 피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한다. 누구든지 무명의 생활을 즐기지 않으면 남의 눈앞에 안전하게 나설 수 없다. 누구든지 침묵을 즐기지 않으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지 기꺼이 남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누구든지 잘 순명할 줄 모르면 적절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3 누구든지 자신의 착한 양심을 증명할 수 없으면 안심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인들은 안전하게 살면서도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놀라운 덕행을 하고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덜 조심하거나 덜 겸손하지 않았다. 악인들이 안심하는 것은 교만과 자존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마지막에는 스스로 속았음을 깨닫게 된다. 네가 아무리 착한 수도자로 보이고 신심 있는 은수자로 보일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믿지 마라.

4 흔히 남들보다 낫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서 큰 위험을 당하곤 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유혹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며, 자주 시련을 겪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 교만해지고 심지어는 지나치게 자신에게만 열중하여 외적인 안락함을 쫓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일 지나가는 현세의 낙을 한 번도 찾지 않고, 한 번도 세속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의 양심은 얼마나 맑겠는가! 사람이 만일 헛된 근심을 다 버리고 영혼에 유익한 것들과 거룩한 것들만 생각하고 하느님만을 신뢰한다면 그 평화와 고요함은 얼마나 위대할까!

5 누구든지 끊임없이 통회하지 않으면 천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기에 합당치 않다. 네가 진심으로 통회하기를 원하거든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 하여라.” (시편 4,5) 하신 말씀같이, 네 방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번잡함을 피하라. 네가 밖에서 자주 잃어버린 것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방에 항상 머물면 방에 머물기가 좋아지고, 방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방에 머물기에 염증이 난다. 네가 입회할 때부터 힘써 방에 잘 머무르면, 결국 네 방은 사랑하는 벗이 될 것이요, 달고 단 위로가 될 것이다.

6 침묵과 고요함 가운데서 신심 있는 영혼은 발전하고 성경의 심오한 진리들을 배운다. 침묵과 고요 가운데 슬픔과 통곡의 눈물로 밤마다 자기를 씻고 정화한다. 세상의 모든 번잡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만큼 더욱 조물주와 가까워진다. 그러니 하느님과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아는 이들과 친구를 떠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자신의 구원을 소홀히 하며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는 숨어 살며 자기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 수도자가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고, 남의 눈에 보이기를 피하고, 사람들을 볼 뜻을 갖지 않는 것은 칭송할 만하다.

7 네가 소유하기에 부당한 것을 무엇 하러 보려 드는가?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간다.’ (1요한, 2,17 참조) 육체의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 다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와 같이 한 것이 네게 양심의 짐을 더하고 정신을 산란케 한 것밖에 무엇이 남는가? 즐거이 나갔던 것이 근심 중에 돌아오게 되고, 밤늦도록 즐겨 논 것이 새벽에 슬픔거리가 된

다. 즉 육체의 모든 쾌락은 단맛으로 시작하지만 후회와 죽음으로 끝난다. 자기 방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을 어찌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는가? 천지와 그 안을 만물을 보라. 이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8 어디를 가면 하늘 아래 있는 것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그렇게 만족할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다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무한 환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눈을 하늘로 들어 하느님께 향하고 네 죄와 소홀함을 뉘우쳐 기도하라. 헛된 사물은 헛된 사람들에게 버려두고 하느님께서 네게 명하신 것에 마음을 두어라. 네 안에 문을 잠그고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불러라. 그 분과 같이 네 방 안에서 살라라. 다른 데서는 그만한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이러저러한 세상을 풍설을 듣지 않았으면, 크나큰 평화 속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바깥의 소식을 즐겨 듣곤 하기 때문에 마음의 번민을 겪게 되는 것이다.

교리146

제21장 절실한 통회심

1 완덕에 도달할 뜻이 있거든,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고, 너무 많은 자유를 쫓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헛된 즐거움을 피해야 한다. 통회는 타락으로 잃어버린 축복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준다. 자신의 귀양살이 처지와 자신의 영혼에 가해지는 많은 위험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2 자신의 결점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에 대해 무감각함으로써 영혼이 참된 통회를 느끼지 않고, 마땅히 슬퍼해야 할 때에도 오히려 헛된 웃음을 주는 일에 자주 빠져든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양심의 평화에 기초하지 않는 자유는 어떤 것이든 참된 것이 아니며, 기쁨 또한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 온갖 분심거리를 멀리 피할 수 있으며 거룩한 통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거나 거북하게 할 만한 모든 것을 피하고 버리는 사람은 복되다. 용감하게 싸워라. 습관은 습관으로 극복된다. 네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들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놔둘 것이다.

3 너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여 바쁘게 지내지 말고, 장상들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네 눈은 무엇보다도 항상 먼저 너를 살피며, 모든 친구들을 훈계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훈계하여야 한다. 남에게 호감을 못 받는다고 근심치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신심 있는 수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인 만큼, 너 자신을 제대로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임을 생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위로를 받지 못하고 특히 육체적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하다. 하느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거나 매우 드물게 받는다면, 이는 우리의 잘못이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쓸모없는 바깥사물에서 오는 만족을 완전히 끊어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4 너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받기에 부당하고 더욱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라. 사람이 완전히 통회하게 되면 세상만사가 거북하고 싫어진다. 착한 사람은 항상 아파하고 울 일들이 많다. 이는 자기를 살펴보고 남을 살펴봐도 괴로움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또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 자신을 살필수록 더욱 아파하게 된다. 마땅히 아파하고 진정으로 통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악습이니, 우리가 그것에 묻혀 천상의 것을 잘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네가 오래 살 궁리를 하는 것보다 지상에서의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한다면 생활을 개선하려고 분명 더 노력할 것이다. 네가 지옥이나 연옥에서 장차 당할 벌을 진심으로 묵상한다면, 노동과 힘겨움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참을 것이며 험한 생활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까지 이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희를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냉담하고 나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너무나도 자주 무력해지는 우리는 영혼 때문에 우리의 가련한 육신이 경솔히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느님께 기도하여 통회의 정신을 빌며 시편 저자의 말과 같이 “당신께서는 백성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시편 80,6 참조)라고 하라.

비안네 신부

배우는 자세의 기도

배움을 더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제가 무지하다는 것,
제가 배울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깊어 갈수록 깨우치게 되는 것은
지식이라는 나무의 가지들이 그리도 무성하고
그리도 오묘하게 뻗어 있다는 것이며
일생을 통해 배운다 해도 여전히 초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롭게 깨우치고, 배워야 하는 분야들을 잘 터득할 수 있도록,
결코 실망하거나 싫증내어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배울 수 있다는 것,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배움을 소중히 하고, 제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우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터무니없는 야망을 지니지 않고, 다만 근면할 수 있도록
성공이라는 물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어진 일들을 바른 순서를 찾으며
주어진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유혹을 거부하며,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으며, 진리 앞에서 겸손하며
재능에서 처지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배우는 것보다 더 무한한 것을 볼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성공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주십시오.

주어진 기회들을 은혜로이 이용하고
주어진 재능들을 감사 로이 계발시키며
배우는 것을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일생을 통해 배움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많이 배울지라도 항상 발견해야 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삶 그 자체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당신이 비추시는 빛을 외면하지 않도록
저를 지혜롭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247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현정수 신부

C C/B Am Am/G Dm Dsus⁴ Dm D G G⁷

C C/B Am Am/G F Dm C C/B Am Em

십 자의 - 신비 로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 신 분 오 주여 가 까 이 오 주여
인 간이 무엇이 기 에 오 주여 이토록 돌보 나 이 까 하느님 당 신 은 하느님

FM⁷ Dm 1. C D Gsus⁴ G 2. C G C

가 까이 나 의 맘 에 내 려오 시 어 죄 많은 부 되 시 도 다
당 신은 나 의 전

Am Em F G C C⁷

하느님 - 당 신은 나 - 의 힘 - 나 의 기쁨되 - 시 니 - - -

아 아 아 -

Am Em Dm D G⁷

나 는 하 - 느 님 당 신 - 의 몸 - 가 장 귀한 도 구 되 리 라 - 나 의

아 - 아 - 아 - 나 의

C E F Fm

주 시 여 나 의 하 느 님 당 신 은 나 의 구 세 주 하 느 님

주 시 여 나 의 하 느 님 당 신 은 나 의 구 세 주

Dm G G⁷ F Fm

당신은 - - 하느님 당신은 - 나 의 모든 것 - -

우 당신은 - 모 - 든

당신은 - 하느님 우 - - - 당신은 - 당신은 - 나 의 모든 것 - - - 모 - 든 -

C D.S. C C/B Am Am/G F Dm

것 우 - - - - -

것 우 - - - - -

C C/B Am Em Fmaj⁷ Dm C G⁷ C

-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 부 되 시 도 다 -

❖ 8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리 디 아 (St. Lydia)	손 수 민	18일	헬 레 나 (St. Helen)	현(김)영애 이 미 용 백(이)영자 윤 혜 진
4일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 부 님			
8일	도미니코 (St. Dominic)	김 대 현 김 치 수 배 성 우			
	도미니카 (St. Dominica)	심(김)선옥	23일	로 사 (St. Rose)	최 종 금 이 선 주 이 중 지
10일	라우렌시오 (St. Lawrence)	우 동 천 엄 현 석		필 립	해준 Heifler
11일	수 산 나	노 정 자 서 수 진	24일	바르톨로메오 (St. Bartholomew)	남궁춘배
15일	마 리 아 (St. Maria)	정 마리아 김 춘 옥	27일	모 니 카	손 수 희 윤 예 진
18일	클라우디아 (St. Claudia)	김(이)영희 이 지 연	28일	아우구스티노	이 석 우 이 철 우 김 민 수

❖ 8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 리 아	김일자(B) 황치숙(B)	18일	글 라 라	전영웅(H)
10일	테 레 사	고희지(B)			
11일	수 산 나	강민정(B)	23일	로 사 (St. Rose)	정지연(H) 최 랑(O)
	알 레 나	배 알레나(B)			
	마리스텔라	정은찬(H)	27일	모 니 카	임소영(O)
15일	스 텔 라	부지우(O)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서선영(B) 고찬연(B)
	메 리	Albrecht(O)			

❖ 8월 성가번호

8월	입 당	봉 헌	마 침
7일	29	220	35
14일	32	215	31
15일	254	218	259
21일	34	512	21
28일	24	219	20

❖ 8월 미사 전례 봉사자 ❖

8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7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클라우드리아)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1구역
14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주일학교 복사단	2구역
15일	최영숙(데레사) 강순행(말가리다)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데타)	이정수(토마스) 곽케빈(요셉)	3구역
21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4구역
28일	김애란(세실리아) 김매자(베로니카)	이수용(필립보) 김순임(안나)	이현목(요셉)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청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6월 26일	7월 3일	7월 10일	7월 17일
계(€)	233.85	236.21	240.58	187.55

❖ 자진헌납금 ❖

2016년 6.20 — 2016년 7.19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헌금납부 :

신옥희, 김기현, 김형웅, 이수웅, 배성우,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이정수, 이현묵,
이영희, 안지영, 이석우, 한선지, 현영애, 이공종, 손수희, 육종인, 박성아, 진윤희,
최장용, 강순행, 강신행, 최순남, 박종래, 민경화, 이종화, 윤예진, 최승진, 김 건,
김경미, 이중지, 이수연, 이정은, 서세원, 김민수, 한말조

구좌입금 :

Eillinghoff 정숙, 이명원, 김부남, 오옥수, 강일남, 홍경영, 남궁춘배, 최성자, 김대현,
김수혜, 백정선, 최현봉, 김치수, 김진호, 김동수, 허두옥, 서유미, 허길조, 곽케빈,
이성원, 이상봉, 권지연, 최화영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8월 달에는 구역 소공동체를 씁니다.
3. 전체 공동체 청년 교육, 친교 MT에 영적, 물질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8월 4일은 본당 신부님 축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5. 8월 15일(월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만남성당에서 15:00에** 봉헌되어집니다.
6. 8월 18일(목요일) - 20일(토요일)은 주일학교 고학년 신앙학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사회를 통해서 학부형께 전달하겠습니다.
7. 8월 27일(토)은 제43회 배구대회의 날입니다. 이에 준비과정과 당일 참여 시간 및 봉사협조는 배구대회 준비 위원회에서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8. 예비자 교리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방은일, 황태엽, 한규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 공동체 소식 ❖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8월 미사 후에는 조영실 마리세실 자매님의 초대로 친교를 이룹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8 월 중 행 사 예 정 표

2016년도

(소공동체 없음)

함부르크 본당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월			
2	화			
3	수			
4	목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꾸리아	
5	금			
6	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브레멘 공동체
7	일	연중 제19주일 입추	사목협의회	
8	월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9	화			
10	수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11	목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12	금			
13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4	일	연중 제20주일	청년 소공동체	
15	월	성모 승천 대축일 광복절	대축일 미사 15:00 - 강당	
16	화	말복		
17	수		요셉 마리아회	
18	목		주일학교 신앙학교	
19	금			
20	토	성 베르나르도 아파스 학자		
21	일	연중 제21주일		
22	월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23	화	처서		
24	수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25	목		연령회	
26	금			
27	토	성녀 모니카 기념일		43회 배구대회
28	일	연중 제22주일		
29	월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30	화		성령 세미나 - 9월2일	Kardinal Schulte Haus
31	수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viannae@hanmail.net
 본당신부님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